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지원 · 체계 강화

도교육청,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

가해학생 행정심판 등서 피해학생에 알려 진술권 보장
전문상담인력 활용 피해학생 보호 상담 등 대폭 강화
생활교육 지원 강화 등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

학교폭력 대입 반영?졸업 후 4년까지 보관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책으로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가해학생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피해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심리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학생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시 피해학생에게 이를 알려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학교폭력전문상담인력을 적극 활용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사안처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를 위해 생활교육지원단의 사안처리 컨설팅 및 생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이어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수업 지원 대체강사를 늘리고, 학교폭력집중지원학교를 확대해 사전예방-사안처리-사후관리를 통합해 지원한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와 따듯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 지원,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 연극, 학생 체험형 역할극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하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삭제 요건 강화,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전형 반영 등의 이번 대책은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교육부의 후속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꿈돋움 사이버영재교육원 참여 학생 18일까지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 함께 할 '2023학년도 전북꿈돋움 사이버영재교육원'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과학·수학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이다.

전북꿈돋움 사이버영재교육원은 KAIST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개발한 프로젝트형 온라인 교육이다. 선교육 후선발 전형으로 수강 신청을 완료한 모든 학생이 1학기 교육대상자로 자동 선정되며, 학생들은 KAIST 대학생 멘토와 함께 단계별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1학기 교육은 24일부터 6월 4일까지 6주간 40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후 수행 평가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학기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특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대상자로 추천된 지원자는 각 분야별(모집단위) 선발 인원의 10%까지 정원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최종 수료자는 1년 교육과정(100시간)에 80% 이상 참여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학생으로 5~6학년 각각 40명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4~18일 KAIST 사이버영재교육(http://talented.kaist.ac.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최종 수료자는 GED(국가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에 수료 사실이 등록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된다. /장은성기자

우석대학교 남천현 총장과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13일 우석대학교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연구·학술 교류 협약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석대-군산대, 교육 · 연구 · 학술 교류 '맞손'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협력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가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 분야에 대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13일 우석대학교 대학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이장호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 △상호 학점인정 △학생 학술활동 교류 △연구 및 학술연구 공동 추진 △산학협력 분야 정보교류 △시설 및 장비 공동사용 등이다.

남천현 총장은 "대학 간 협력과 공유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대학이 튼실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호 총장은 "양 대학의 강점 분야를 서로 교류하고 인재 양성에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교장공모 정책 이해도 'UP'

도교육청, 설명회 열어… 운영학교 사례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전주비전대 비전컨벤션홀에서 학교 자율화 및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학교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교장에게 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교장공모제에 관심이 있는 교직원을 비롯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 교장공모제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인사과 장학관이 전북교육청 공모교장제를 설명하고, 남원초와 감곡중에서 각각 내부형과 초빙형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교장공모 대상학교로는 공립 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직,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 후임 보충이 필요한 초·중·고 미 특수학교다.

현재 도내에서는 초빙형 43곳, 내부형 24곳, 개방형 5곳 등 총 72개교에서 공모 교장이 학교를 이끌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교장공모 대상학교는 초등 39개교, 중등 15개교 등 총 54개교로, 이중 3분의 2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지정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모 대상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소외·낙후지역 학교, 공모교장 희망·선호학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는 학교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활성화 등을 통해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강화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과학체험마당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체험마당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모든 시군에서 진행되는 과학체험마당은 유·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과학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먼저, 4월에는 부안, 임실, 군산에서 운영된다.

부안 과학체험마당은 15일 해뜰마루에서 '미래를 이끄는 부안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STEAM)체험'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학, 융합, 환경, 공학 등 4분야 24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어 22일 임실군민회관 강당에서는 '행복한 배움,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펼쳐진다.

또 군산 과학체험마당은 29일 군산월명실내체육관에서 '생활속의 융합과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체험'이라는 주제로 39개의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이 외에도 장수 5월 5일, 정읍 5월 19~20일, 전주·익산 6월 10일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학령인구 감소 · 산업구조 변화 대응

전주대, 글로컬대학 육성 지산학연 협력 방안 논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3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지방사립대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방 사립대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방안'이다. 이 자리에 대학, 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대학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포럼에서는 고등교육정책 변화와 지자체 역할, 전라북도 RISE 추진 현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에 전주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대학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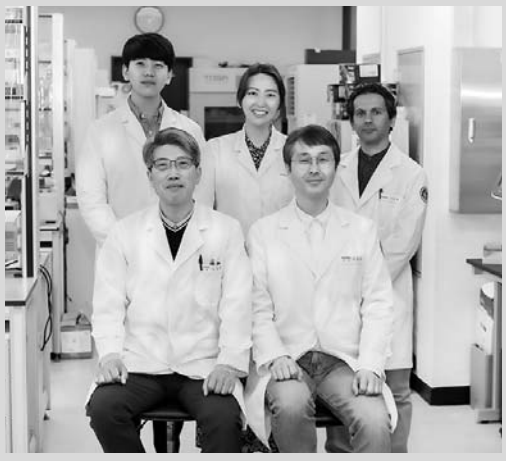
또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의 대학혁신을 추진하고자 기업친화형 교육과정 및 맞춤형 인재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의 전면적 체질 개선에 요청 사항, 기업 친화형 교육과정 및 맞춤형 인재육성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의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박진배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직접적으로는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방소멸의 위험도를 가중시키는 만큼 지자체와 산업계, 하계와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야 할 때"라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초미세먼지, 신생아 시기에 더 위험'

전북대 국성호 · 이정채 교수팀, 조혈모줄기세포 노화 등 수반 밝혀

전북대학교 국성호(생리활성소재과학과)·이정채 교수(치의학과) 연구팀은 최근 동물모델을 활용해 초미세먼지 노출 시기에 따른 조혈모줄기세포의 노화 양상과 치사율 간의 관련 기작을 밝힌 논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학교 국성호(생리활성소재과학과)·이정채 교수(치의학과) 연구팀은 최근 동물모델을 활용해 초미세먼지 노출 시기에 따른 조혈모줄기세포의 노화 양상과 치사율 간의 관련 기작을 밝힌 논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동물실험(생쥐)을 통해 성체에 비해 신생아 시기의 생쥐가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폐 조직 내 활성산소 발생과 염증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은 노년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골수 미세환경의 손상과 조혈모줄기세포의 노화가 수반되며, 이는 신생아 시기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노년 시기 높은 치사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골수 미세환경의 손상은 골수에 존재하는 중간엽줄기세포의 노화에 따른 현상이며, 정상 생쥐에 비해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저항력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신생아 시기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골수 손상 기작과 치사율간의 연관성을 3년 여 간 추적해 확보된 결과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 에 게재되기도 했다.

국성호·이정채 교수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며 "초미세먼지 수준에 따른 연령별 보호대책, 특히 신생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미세먼지에 따른 질병의 진단과 예방,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꿈길' 지원단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꿈길' 운영자 핵심 강사 양성에 나섰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서 각 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 지원단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지원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꿈길'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이뤄지는 진로교육활동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시에서는 군산·김제·완주·익산·전주·정읍·진안 등 7개 시군이, 2차시에는 고창·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익산 남성고등학교 이주미 교사가 '꿈길' 담당자의 역할과 운영 실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이를 통해 진로체험처 검색 및 분류별 프로그램 조회, 진로체험활동의 신청·승인, 체험처평가와 체험활동 만족도 평가, 진로체험활동의 기록 관리 및 학생 체험활동 등록, 연간 진로교육활동 실적 보고 등을 익혔다./장은성 기자

기전대 끼찾기상담센터 전주정신건강센터와 협약

전주기전대학 끼찾기상담센터(센터장 김가현)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주기전대학 및 전북 지역 대학생(청년)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26~27일 개최되는 전주기전대학 축제 기간에 마음 버스, 심리검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